

친환경 생태복원 창출과 새로운 국제화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하자



(사)한국조경수협회
제25대 회장 김창욱

친애하는 조경수협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

희망찬 戊子年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우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목표가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 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협회발전을 도모하여 창립40주년 기념행사와 “조경수 40년사”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정책과제 용역을 맡아 “합리적인 조경수조성·관리 및 생산·유통 개선 방안”에 관한 조경수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경북 고령에 경북조경수유통센터, 충남 논산지역에 충남조경수유통센터가 올해부터 개장 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협회 회원들을 위한 조경수생산기반시설사업인 토양개량, 관정·장비, 농특회계 조경수생산용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확대, 조경수생산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와 조경수 정부고시가격의 인상을 위해 노력 하는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원여러분과 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산림청 지원 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협회기금이 마련되어 협회발전에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정부보조지원 사업은 물론 "조경수조성관리기술자" 기술자격증 제도를 도입 우수한 조경수목의 재배, 생산, 유통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전문자격을 갖춘 국가공인자격제도를 신설코자합니다. 또한 조경수생산 우수사례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개최 등 협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제공과 신기술의 습득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한반도 대운하 및 신행정부합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더불어 조경수의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 여겨지며 앞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우리협회 주무부서인 산림청이 농림부에서 건교부로 이관되어 우리 조경수 생산자의 위상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많아 질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조경수의 체계적인 생산이 필요한 때라 여겨지며 수목의 품질향상과 대형수목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부단한 생산기술의 향상과 신품종개발, 상품의 고급화 등 합리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고 정진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생산기술의 향상, 우량조경수생산, 신품종개발, 컨테이너재배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환점이 더욱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예측 가능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조경수생산에 앞장서야 하며, 조경수생산재배와 관리,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조경업계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조경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수준 높은 요구에 부합하는 조경공간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경산업은 세계화속에서 미래첨단산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조경수회원 및 임원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조경산업의 발전과 튼튼하고 안정된 조경수생산업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금년을 자연친화적인 생태복원과 새로운 국제화 시대의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의 존립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녹화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창조적인 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의 확립, I·T 강국으로써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교류의 다양화 등에 모든 역량을 경주합시다.

끝으로 조경수생산자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금과 기술지도 등 많은 지원을 하여주신 정부당국에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戊子年 새해 아침에...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김 창 옥